

名唱의 내력 찾아나선 판소리紀行

「판소리예술미학」 펴낸 李菊子교수

판소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예술로서 여느 전통예술과는 달리 그 질기디 질긴 생명력이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현대 속의 전통예술이다. 하지만, 그 생명력의 근원과 전승과정, 곧 발생과 형성의 비밀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조선 숙종조에 생겨나 영·정 연간에 장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이 통설로 굳어져 있지만, 그런 연대기적 진술의 무미건조함이 판소리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바는 사실 그다지 크지 않다. 마찬가지로, 판소리의 기원이 육자배기류의 雜歌에 있다거나, 혹은 巫歌가 근대적 산문문학과 결합하면서 판소리양식이 성립됐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단지 부분적 타당성을 갖는 가설일 뿐이다.

최근 李菊子교수(45·순천간호전문대·국문학)에 의해 상제된 「판소리예술미학」(나남)은 그같은 점에서 판소리의 秘域을 열어젖히는 새로운 열쇠들을 제공한 역자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에 비해 여러가지로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 이만한 성과를 길어올렸다는 점도 주목을 끌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은 한국의 산화와 자연,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삶의 내용 전체에 바탕을 둔 ‘현장’중심의 판소리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발로 걷는 현장체험 통한 판소리연구

“학자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술적인 연구나 혹은 호사가가 선반 위에 올려진 골동품을 바라보듯 한 것이 아니라, 두발로 걷는 현장체험을 통해 판소리의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2백여년 전의 歌王 宋興祿에서 현재의 인간문화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판소리사의 출중한 명창들의 내력이 묻혀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판소리의 원류를 탐색하고 그 전승의 올바른 가다가닥을 잡아보려고 했죠.”

이를 위해 李교수는 8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의 만 2년간을, 그동안 판소리의 원적지로 알려져 왔던 전라도지역에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까지 이르는 필드워크의 분주한 발길 속에 보냈다. 애초엔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 「藝鄉」의 연재물로 염두에 둔 판소리脈의 탐사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됨에 따라 여정이 길어지게 됐다.

특히, 충남 서천 출신의 명창 朴東鏞에게서 그 실체가 확실치 않았던 中古制소리의 실재를 발견한 것이 결정적 전기가 됐다고 하는데, 李교수는 이를 “책상 위에서 종이에 그려본 판소리맥의 구도로는 짐작도 못할 생생한 현장 체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같은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李교수가 새로 그린 판소리맥의 구도에 의하면 판소리 발생과 전승에 관한 이제까지의 통설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

“판소리가 섬진강 유역의 전라도지방에서 발생했다는 생각은 수정돼야 합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판소리의 뿌리는 영산강·금강·낙동강권과 서천·서산·수원·인천에 이르는 서해안선으로 깊숙이 뻗어 있었고, 남한강 상류지역인 충주·여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도 그 풍진이 진하게 남아 있죠.”

즉, 판소리는 처음 서울을 중심으로 한 京制가 크게 번창하다가 점차 충청권의 中古制,

2년여에 걸친 집요한 현장조사로 판소리 발생과 전승의 맥락을 재정립한 李교수는 그간 가려졌던 판소리의 秘域을 여는 몇몇 소중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판소리가 전라도지역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든가, 혹은 사면과의 발생론적 연관관계를 밝혀낸 점 등은 이 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국자 교수

경상권의 東便制로 세력이 넘어가고, 다시 50년대 이후에는 전라도의 西便制가 그 밑에 각 양식들의 유혼을 퇴적층으로 간직한 채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李교수는 판소리가 토착성이 강한 ‘농경형’ 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생산력의 크기에 따라 무게중심을 옮기는 유동적 ‘산업형’이라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한다.

판소리와 사면의 관계도 새롭게 조명

한편으로 李교수는 「판소리예술미학」을 통해 우리의 판소리가 발생론적으로 巫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또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조심스레 제시한다. 특히, 사면과 관련된 판소리의 발생론적 연구가 이제까지는 주로 ‘巫歌’와의 장르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데 반해, 李교수는 ‘巫家’의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판소리의 기원을 캐내 이채롭다.

“우선 巫家が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고 거의 유일한 ‘예술가족’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오랜 세월의 공력이 요구되는 판소리 학습의 특성상 일정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巫業의 경영으로 전통사회의 常民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巫家が 판소리 발생과 전승의 주체이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李교수의 조심스런 가설이다. 그리고 이같은 가설은, 집요한 현장추적을 통해 현존하는 여류명창 金素姬가 사면의 딸이었음을 밝혀낸 예에서 보듯, 단순한 가설에 그치지 않는 사실로 확인된다. 같은 巫家이면서도 一代로 그치는 降神巫 중심의 이북지역에 비해 누대에 걸친 세습무 중심의 남한지역에서 유독 판소리가 성했던 사실도, 판소리가 巫業의 경제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李교수의 가설을 반증한다.

1개월만에 재판단행

컬러예화집

돈이 보낸 편지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부터 청소년 모범 도서로 선정된 양서

이의용 지음

眞實은

단 한 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짤막한 예화들.

예쁘고 재치있는 컬러삽화.

짧고 쉽고 맑고 깊은 메시지 72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대판 명심보감.

독자대상 : 7세 ~ 77세

<2천8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에세이집

내 놀던 옛동산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 그리움이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립지 않은 곳은 출생지일 뿐

고향은 아니다.

어머니와 고향을 가진 이는 행복하다!

결론을 독자에게 유보하는

참신한 수필 47편.

<2천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칼럼집

고독이라는 교만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고달픈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낙심하는

고독한 직장인들에게 주는 산업칼럼.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독선에서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고독의 샘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

기업, 사회, 직장인에게 주는

체험적 메시지 84편.

<2천5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한국, 모스크바도서전에 처음 참가

9월12일부터 1주간... 한국도서 5백여종 출품

오는 9월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도서박람회에 우리나라도 처음 참가하게 됐다. 이번이 제7회인 모스크바국제도서박람회는 지난 77년부터 소련이 해외진출을 위한 광고와 각국간의 출판부문 등 문화교류를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 이번 도서박람회에는 총 66개국에서 2천여개사가 10만여종의 도서를 출품, 명실상부한 '책의 올림픽'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스크바 도서박람회의 참가를 앞두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炳壹)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소련에서의 '한국붐'을 이 도서전에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 아래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다. 우선 이제까지의 국제도서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60㎡)로 한국관을 설치, 국내 80개 출판사에서 500여종의 책을 출품해 한국의 학문과 출판문화수준을 세계에 과시할 계획이다. 출품도서는 한국어판 369종 871책과 외국어판 202종 931책 등 모두 571종 1802책인데, 전시가 끝난 뒤에는 현지의 한국학과 설치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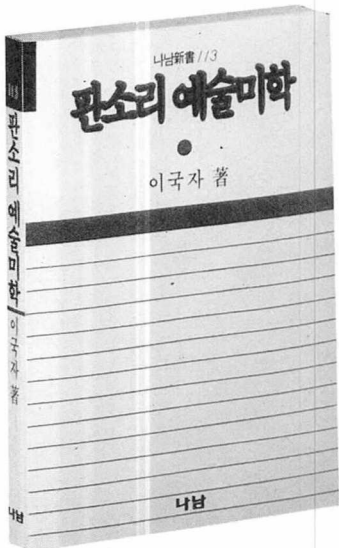
특히 도서축제 기간중에는 '한국의 날'(9월16일) 행사도 마련해서 재소 한국학자들과 한국학연구기관대표 20명을 초청, 세미나와 리셉션을 갖기로 했다. 이 세미나에서 한국측 대표단은 한국의 출판계현황과 한국책의 구입방법을 설명하고, 소련측에서는 소련에서의 한국학연구와 관련된 한국책분야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소련출판기

관과 저작권 관계자들까지 참석하게 될 이 '한국의 날' 행사는 소련과의 출판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在蘇 한국인을 위한 도서기증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한·소간의 도서출판부문에 관한 협조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모스크바국제도서박람회에서 과연 공산국가와의 출판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협은 이번 모스크바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할 21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권병일(출협회장·지학사대표) ▲정진숙(울유문화사) ▲한만년(일조각) ▲김덕기(중앙문화사) ▲김병익(문학과지성사) ▲김영진(성서교재간행사) ▲김현식(동아출판사) ▲나춘호(예림당) ▲박맹호(민음사) ▲박태근(한신문화사) ▲유익형(범문사) ▲유제동(교문사) ▲이기웅(열화당) ▲이두영(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이승하(성광문화사) ▲임인수(한림출판사) ▲임홍조(영재교육사) ▲진한철(평범사) ▲권지용(지림출판사) ▲민숙자(지학사 감사) ▲안건혁(경향신문사 문화부차장)



동편제를 집목한 朴裕全의 이른바 剛山制소리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지만, 석사학위만 해도 신라향기 및 고려가요 연구로 받았을 만큼 판소리에 대한 開眼은 그리 이른 편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外家가 있던 전주를 왕래하며 판소리의 공연현장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판소리 특유의 집단적 엑스타시와 민족적 응집력을 발견하면서 학문의 韜도를 수정한다. 그 韜도수정의 첫번째 결실이 1983년 그에게 박사학위를 안겨준 「판소리의 해석학적 연구」(이화여대)로 맺어지고, 이어서 이 논문과 그간 발표했던 글들을 함께 묶어 1987년에 첫저서 「판소리연구」(정음사)를 펴냈다.

이번의 「판소리예술미학」은 말하자면 「판소리연구」에서 제시했던 이론의 정당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연역적으로 확인한 저술이 되는 셈인데, 이와 함께 李교수는 그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다”고 표현한 2년간의 현장체험에서 귀납할 수 있었던 새로운 단서들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판소리예술미학」의 정립을 앞둔 연구과제로 떠맡고 있다. 이제까지의 판소리연구가 국문학 혹은 국악의 아마추어적 주변학문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李교수는 명실상부한 「판소리학」의 디딤돌 놓기 작업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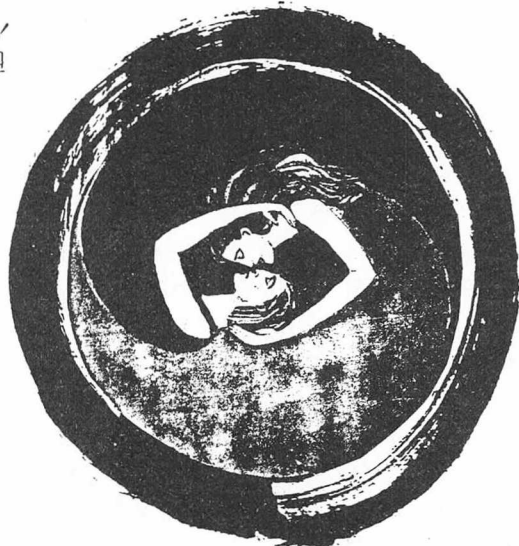
“1987년 5월 장마 속에 신록이 우거지던 구례 섬진강교 도착을 기점으로 1989년 5월 진주 팔점무 인간문화재 속으로 흘러든 판소리의 맥을 따라가보았던」 판소리의 과거 탐색에 이어 “이제는 미래의 판소리를 위해 그 길고 어두운 통로에 ‘과학의 등불’을 비추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다. <강철주>

마찬가지 맥락에서 李교수는 여류명창의 등장을 근대 이후 쇠잔해지는 巫業의 운명과 결부시키는 독특한 견해를 펼쳐보이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우리 판소리의 구체적 현상으로부터 어렵사리 추출해낸 것들이라는 점에서 「판소리예술미학」의 의의는 돋보인다. 그가 실감나게 구사하는 전라도사투리의 어투 그대로 “까까까막 및혀저가는” 古老들의 기억 저편에 가라앉아 있던 판소리의 가닥들을 하나하나 건져올림으로써, “단군신화로부터 내려오는 샤머니즘의 에너지가 민중 속에 간직되어 생동감으로 작용하는 판소리의 현장”을 비로소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다.

「판소리에 '과학의 등불' 비추겠다」

李菊子교수가 판소리연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대략 15년전의 일로 막 30대의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서편제에

●제목이 필요없는 이유를 서점에서 확인하십시오.
맨타크 치아/박상준 옮김 / 값 3,500원



욕망의 침대에서는
삶의 공허를 메꿀 수 없다!

「제목이 필요없는 책」

병든 시대를 위한 성성 흥부

춘화春畵를 보고 있는 사람, 또는 포르노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성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적인 것만을 찾는 치한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춘화나 누드 그림이 보다 그들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흥분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자빌딩 502 호
☎ 739-2520, 738-7709